

(주)우진아이엔에스, 2016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



지난 12월 1일 개최된 2016
건설협력증진대상 수상자
기념촬영

건설경제신문과 건설외주협의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후원하는 제12회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형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성장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정내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등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기계설비협회 회원사로는 (주)우진아이엔에스(대표 홍평우 · 손광근)가 협력부문 대상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에 (주)한라, 대

하산업개발(주), (주)우진아이엔에스가 수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주)도원이엔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에 진성산업(주)가 수상했다. 특히 (주)우진아이엔에스는 대회 사상 최초로 협력부문 대상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종합건설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양질의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평가받았다.

이동규 심사위원장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건설협력증진대상은 회를 거듭할수록 종합과 전문 간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상생협력 아이디어를 통해 건설산업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PFP 등 신공법 신기술 개발로 기계설비업계 발전 선도 (주)우진아이엔에스



손광근 대표(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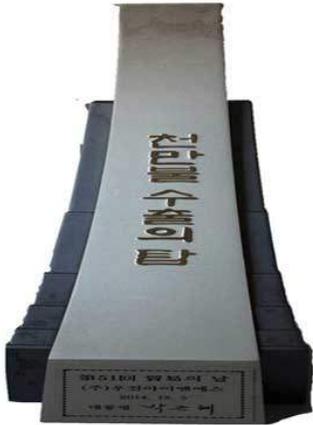
지난 1975년 설립한 우진아이엔에스는 기계·소방설비분야 전문 회사로 41년간 기계설비업계 발전을 이끈 선두주자로서 우수한 기술력과 건강한 재무구조, 고품질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시공품질 향상과 경영혁신을 인정받아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 LH 등 정부기관과 발주처로부터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았으며,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삼성물산 등 유수의 국내 건설사로부터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우진아이엔에스는 기계설비의 고품질 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0년대부터 PFP, UNIT PIP 공법을 도입하여 공장제작, 현장설치 시공을 선도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공기 단축, 자재ロス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 알칼리성의 부식성 배기가스를 환경오염 없이 안전하게 배출 가능하고 불연, 내화학적, 내식성, 내연성이 보장된 친환경 덕트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3대 국제적 인증기관인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operation) 인증(2001년, 2003년)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흑업 부속류(엘보, 티, 소켓, 담파 등)에 SVT Gasket(Super Viton Gasket)을 부착하여 연결 조인트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 및 품질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반도체 생산 중 발생하는 공정부산물(Powder 막힘)에 의한 Shut-Down 사고 및 PM(Preventive Maintenance) 주기 연장 예방을 통해 오토 클리닝 실현에 앞장서는 등 신기술, 신공법 개발로 기계설비업계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 품질점검을 통한 PDCA(생산 및 품질관리)로 고객만족 최우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월평균 250여명의 상시근로자와 1천여명이 넘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숙식제공은 물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함께 직원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등 노사가 하나되는 회사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진출 및 1천 2백만불 매출 달성 공로로 대통령 표창 및 1천만불 수출탑 수상



해외시장 개척에도 에너지를 쏟아부어 왔다. 우진아이엔에스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업체 설립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중국 서안에 '서안우진전설비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후 2013년 중국 상해, 소주, 서안 등에 약 US 1천만불의 코팅 덕트, 코팅흡업 및 그 부속류 및 생산장비를 수출했으며, 2014년에는 USD 4백만불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미국 Coguard사와 덕트 코팅 기술 업무협약을 체결(2014년)하여 미주 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였고, 생산시설에 과감히 투자 중인 개발도상국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선진국에 우진아이엔에스의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는 등 능동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지난 2014년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활발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및 129,209백만불 매출을 달성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및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홍평우 회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수훈

홍평우 회장은 1975년 우진설비(현 우진아이엔에스) 설립 후 대한설비건설협회 창립을 주도했고 제4대 회장을 역임하며 기계설비건설업계 발전에 헌신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 및 국내 유수의 아파트, 공공건물 등 주요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 41년간 시공품질 향상 및 경영혁신 등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산업포장(1999), 은탑산업훈장(2002), 자랑스런 건설인상(2007), 서울시장 표창(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우수시공, 2014), 그 외 다수의 정부 및 발주관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밖에 2001년 설비자재 전자상거래회사인 원칸네트웍스를 설립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관사로 선정돼 국내 설비자재 분류체계 표준화와 함께 B2C 쇼핑몰(www.sulbimall.com) 운영 등 사업 다각화로 기계설비업계의 자재 유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해 사랑의 빵 나누기 운동 전개 및 각종 성금 기탁 등 사회공헌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공능력 1위 업체로 성장 _ 대하산업개발(주)

1993년 이정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대하산업개발은 건축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 소방시설공사) 외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GS건설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된 후 2015년까지 우수협력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전국에 명성을 알렸다. 2008년에는 대한주택공사 우수협력업체 지정됐고,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NH) 우수전문건설업체 선정, 2012년 GS건설과 호반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NH) 우수협력업체 지정, 2013년 삼성그룹 건설 부문 3사 협력업체 우수상 수상, 2015년 호반건설 우수



이정희 대표를 대신하여 나승찬 전무가 수상

협력업체로 선정되며 성실시공이라는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이후 광주광역시 기계설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밖에 모범납세자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사회공헌활동으로 투명경영 입지도 단단히 굳히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기계설비라는 외길을 걸으며 솔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으로 우수시공 역량을 갖춘 지금의 대하산업개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상생협력은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분야 뛰어난 시공능력 인정받아 _ 진성산업(주)

진성산업(대표 손성덕, 사진 오른쪽)은 소방시설 분야에서 뛰어난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1996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설립된 진성산업은 1996년 전문기계공사업 면허와 1998년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하면서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1998년 증자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웠고, 꾸준히 실적을 쌓아 현재는 호반건설의 협력사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호반베르디움 신축현장 소방공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호반건설 공사를 통해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손성덕 진성산업(주) 대표이사는 지난 20년간

성실한 시공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호반건설로부터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 2014년에는 호반건설의 최우수협력업체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됐다.

특히 2008년 6월에는 '건설의 날'을 맞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

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부터도 2차례에 걸쳐 공로상을 받는 등 업계에서 우수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손성덕 대표이사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오고 있다.



협력업체 부담 완화 등 상생의 길 적극 모색 _ (주)도원이엔씨

1992년 창립한 도원이엔씨(대표 성우종)는 '가족이 행복해야 직장이 행복해진다'라는 슬로건 아래 협력사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해소하고 2차 협력업사에도 현금결제가 이뤄지



성우종 대표를 대신하여 김영일 전무가 수상

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 도원이엔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적자보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계약을 변경해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협력업체의 재무적 안정을 위한 하도급 직불제도 운영 중이다. 2차 협력사 등 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관리 담당자의 협력업체 미불금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도급 대금 선지급과 보증서 미발급으로 보

증수수료를 아끼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이 적용된 전자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인지세도 절감하도록 했다.

협력사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협력사가 개발한 신공법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자문과 금융을 지원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을 함께 연구·개발해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성우종 대표는 “협력사와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협력사 직원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도 먼저 생각하는 수평적이고 감성적인 동반 성장의 길을 실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1월 22일 서울 논현동에서 개최됐다(사진 우측 첫번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신구 상임부회장)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2016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월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건설기능인의 날 행사는 130만 명에 달하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건설기능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인사와 노동계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건설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과 권익 향상에 부합하는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치사를 통해 “이 행사를 통해 진작된 건설기능인의 사기와 고취된 자긍심은 건설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건설업에 장기간 근무한 건설기능인 총 35명에게 산업 훈장·포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이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수상자 중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 근로자

성명	소속	직위	훈격
박순석	진성산업(주)	배관공	국무총리표창
차인환	(주)세방테크	작업반장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김종길	(주)정도설비	배관공	고용노동부장관표창